

제5과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울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주님이 죄인을 구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1. 주님은 ()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지지난 주에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확인했듯이 주님의 제자들의 면면이 그리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골 출신 어부나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같은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주님은 늘 그런 죄인들과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19)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11-12)

2. ()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10-18)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2)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8-10)

바울은 믿음 안에 형제 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1-3)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5)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마음속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
느니라”

(마태복음 15:18-20)

→ 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
을 증명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23)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척
하는 ‘외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
인들을 보고 견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
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27-28)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34)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의인’이라는 착각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죄인이었는데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3. ()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31-32)

→ 주님은 분명히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모르거나, 스스로 속이는 자’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15)

현대의 이단 중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면 구원 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바울은 구원 받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시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8-10)

❖ 회개의 두 가지 측면

첫째, ()

이는 죽음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말합니다.

둘째, ()

이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향해 가는 회개를 말합니다.

4. 죄인을 ()

이렇게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38-39)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24-25)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0-14)

→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과하심’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게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처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는 것 이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씻음 없이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